

친환경차 도시 광주 전국에 알리다

광주 19개 업체 서울모터쇼 참가 운장현 시장 개막식에서 축하 부품클러스터 본격 조성 등 소개

친환경자동차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 운장현 시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서울모터쇼' 개막식에서 광주의 친환경자동차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 준비된 도시로서의 광주의 장점을 피력했다.

운 시장은 주황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 김용근 서울모터쇼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저는 제 관용1호차로 기아차 쏘울 전기차를, 2호차로 수소차 투싼을 타고 있는 광주광역시장이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광주는 1965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가 조립됐던 도시이고, 현재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연간 50여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제2의 자동차 도시이다"며 광주를 설명했다.

운 시장은 "광주는 올해부터 국책사업으로 30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며 "더구나 한국전력이 가까이 있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스마트시티 융합을 통해 미래의 자동차도



운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서울모터쇼' 개막식에 참석한 뒤, 제1전시장에 마련된 광주시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를 꿈꾸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1월 중국의 EV100인 포럼에 초청받아 다녀왔는데 큰 깨우침과 걱정을 함께 느꼈다"고 털어놨다.

운 시장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극복해야 할 것은 새로운 트렌드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다"며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가 말했던 시기보다도 훨씬 빠르게 우리는 친환경자동차시대 그리고 커넥티드 시대로 진

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얼마나 정부와 기업, 지자체, 노조가 함께 응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운 시장은 "광주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새로운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연봉 4000만원대 범위의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국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혈로를 여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

다"고 밝혔다. 끝으로 운 시장은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광주는 이러한 빠른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광주를 찾아 주시면 광주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7 서울모터쇼에 광주에서는 19개 업체가 참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홈텍스·위텍스 신고 연동" 박영석 광산구 주무관 우수상

광주 광산구 세무2과 박영석(사진) 주무관이 최근 광주시가 주관한 '2017년 지방세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발표대회'에서 과점주의 취득세 납부 방식 개선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7년 지방세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5개구 세무 담당 공직자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박영석 주무관은 '과점주의 간주 취득세의 효율적 신고 납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의 취득세 납부 방식 개선을 다룬 내용이다.

박 주무관은 "과점주의 저조한 취득세 신고율은 관할지자체와 국세청의 공조 체제 부재가 빛은 현상"이라며 "간주취득세 사전 안내문 발송, 국세를 다루는 홈텍스와 지방세 전용 위텍스의 주시거래 신고 연동, 매년 지방분동 신고 의무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송렬기자 srchoi@kwangju.co.kr>

청년 취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내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광주청년드림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해 직업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가 올해 새로 도입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이다.

청년들의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참고, 초기에 경제활동으로 유도해 직무 역량을 쌓도록 계획했다.

지역 사회에서 미래 비전을 찾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형 ▲기업형 일 경험에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활동 및 창작형 등 3개를 추가해 총 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특히, 참여하는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여러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구직비용도 지원한다. 4월 4일까지 5개 유형에 대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기관이 선

정되면 4월 10일부터 청년 참여자 신청을 받아 선발한 후 5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한편, 광주청년드림 사업은 지난 1월부터 두 달에 걸쳐 청년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도시 광주 TF'를 통해 기본방향부터 세부계획까지 협의해 추진했다. 구중천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청년드림 사업이 광주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으로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며 "지역의 청년들과 일의 비전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수행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르신 임대주택 환경지킴이 본격 활동

광주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문기)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환경지킴이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총 75개동 824호 주택에 지역 어르신 140명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공영부 청소 및 주변 환경 정화 활동과 무단 쓰레기 투기예방 등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 4회, 1일 최대 2시간의 환경정화 활동

을 수행하면서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주변 거리 정화활동까지 병행해 지역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활동에 참가하는 어르신께는 매월 21만4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도시공사는 환경지킴이 사업을 매년 시행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돌봄이웃과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우수 의술 결실...몽골에 난임센터 개원

시열병원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열병원이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불임치료 분야)로 몽골에 불임치료 센터를 열었다.

난임 치료 시험관아기기술 전문병원인 시열병원(병원장 최범재)은 2016년 정부지원사업인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시엘(MongCL fertility center)난임센터를 개원했다.

대학병원이나 수도권 대형병원이 아닌 지방병원이 몽골에 진출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의 산부인과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시열병원의 행보에 의료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개원행사는 주 몽골 한국대사관 강단에서 거행됐으며 몽골 보건성장관, 국회의원들과 주몽골 한국대사, 러시아 대사, 벨라루스대사, 일본 기소카이 글로벌의료재단 이사장, 조순대 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 시열병원에서 임신에 성공한 다수의 몽골현지 난임 부부들까지 1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몽골정부 관계자는 "몽골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시열병원이 최첨단 기자재와 기술, 큰 자본을 가지고 몽시엘 난임센터를 설립한 것에 감사한다"면서 "몽골과 국민을 위한 시열병원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열병원이 6년 전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서 해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해왔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를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에 최범재 병원장은 우선 병원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다문화 외국인으로 교체했다. 이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해 법무부로부터 우수유치기관(2회)에 선정됐고, 지난 10월에는 2016년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에서 해외환자 우수유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받은바 있다. 이와 함께 몽골에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방문해 시험관아기 기술을 시행받아 300여 쌍의 임신부가 임신을 성공했다. 몽골 출신 의료인을 교육시켜 몽골 보건성 장관상, 식약청 표창상을 받은바 있다.

최범재 병원장은 "몽시엘 센터는 몽골과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등의 일부 지역의 1억 명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출산과 치열한 국내 경쟁을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열병원은 최근 몽골에서 한국과 몽골·러시아 대사, 몽골 국회의원, 강동완 조선대총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몽시엘 난임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시열병원 제공>

광주시, 도시 텃밭 만들기·반려식물병원 5일까지 접수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민 생태농사 교육과 반려식물병원을 운영한다. 도시민 생태농사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5회 열리며, 일일 텃밭 농사 계획하기부터 친환경 해충방제, 발효농법에 의한 퇴비 및 액비 만들기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병원은 15일부터 5월27일까지 4회 열리며 가정원예식물 재배 및 관리 요령, 병해충 진단 및 약제 처방, 분갈

이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교육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가자 접수는 5일까지이며, 참여 과정의 교육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062)613-5309.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최저가 776,000,000**
건물 419평 **감정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최저가 3,304,000,000**
건물 329평 **감정가 3,406,000,000**

담양 담양읍 삼만리 근린시설

대지 1073평 **최저가 540,000,000**
건물 336평 **감정가 1,506,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최저가 788,000,000**
건물 340평 **감정가 1,125,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중용)
대지 110평 **건평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 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